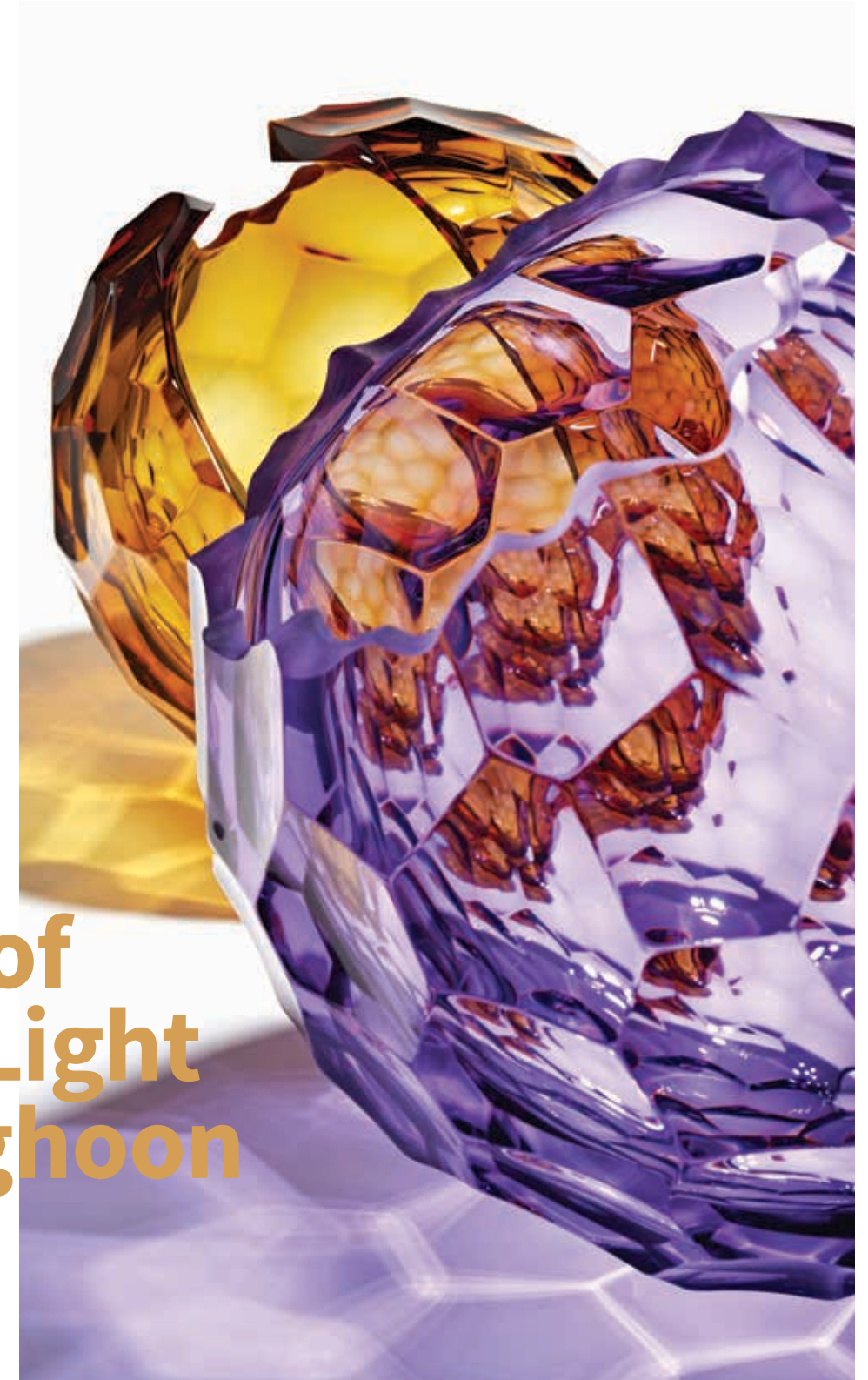


GALLERY  
sklo

박성훈 개인전:  
빛과 시간의 균열

# Fractures of Time and Light PARK Sung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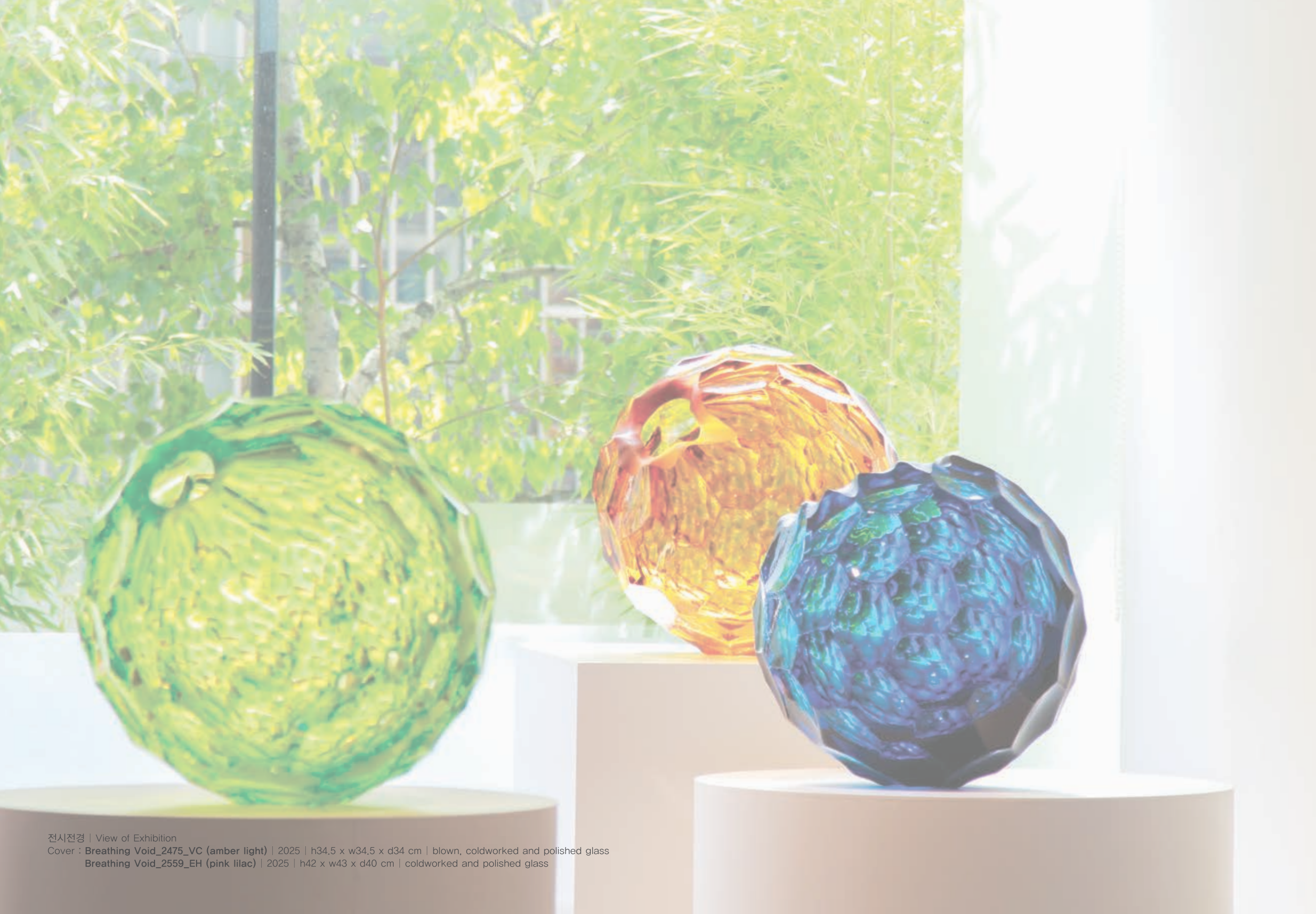
2025.9.12 - 10.18



GALLERY sklo

서울시 중구 다산로 16길 29 비컨힐 빌딩 1층 우)04591  
1F, 29, Dasan-ro, 16-gil, Jung-gu, Seoul 04591 Korea  
TEL 02. 2236. 1583 sklo@gallerysklo.com | www.gallerysklo.com | @ gallerysklo





# Fractures of Time and Light

**PARK Sunghoon**

박성훈 개인전  
빛과 시간의 균열

2025. 9. 12 – 10. 18

## GREETING 03

박성훈 개인전을 개최하며 | 김효정, 갤러리 스킴로 대표

Presenting PARK Sunghoon's Solo Exhibition  
KIM Hyojung, Director of Gallery Sklo

## FOREWORD 04

유한 속의 무한: 박성훈의 Void | 조새미, 미술평론가

The Infinite Within the Finite: Park Sunghoon's Void  
Cho Saemi, art critic

## ARTIST STATEMENT 08

### WORKS 12

Breathing VOIDS  
Variations of VOIDS

### FOREWORD\_English 32

### ARTIST BIOGRAPHY 36

전시전경 | View of Exhibition

Cover : Breathing Void\_2475\_VC (amber light) | 2025 | h34.5 x w34.5 x d34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2559\_EH (pink lilac) | 2025 | h42 x w43 x d40 cm |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 Presenting PARK Sunghoon's Solo Exhibition

written by | KIM Hyojung, Director of Gallery Sklo

갤러리스클로는 박성훈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 《시간과 빛의 균열》을 개최합니다.

박성훈의 작업 세계는 'Void' 시리즈에서 'Breathing Void'에 이르기까지 줄곧 '비움'과 '확장'을 탐구해 왔습니다. 'Void'가 호흡을 불어넣은 에너지의 응축을 표현했다면, 이번 'Breathing Void' 신작들은 작가의 DNA와도 같은 '육각형' 구조 위에 구축되어, 퇴적된 시간의 결을 담고 빛의 분절과 재조합을 통해 호흡하는 공간을 드러냅니다. 육각형 패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치 우주선 패널이 광대한 빛을 모아 다시 우주로 확산시키듯, 박성훈의 작품 속에서 무한을 실험하는 근본 장치로 작동합니다. 유리 표면을 따라 끊임없이 갈라지고 재편되는 빛은 새로운 색과 공간, 그리고 지각의 층위를 형성하며 관람자를 변주의 경험 속으로 이끕니다.

이번 신작의 핵심은 이러한 구조와 과정이 단순한 시각 효과를 넘어 '시간의 물질화'라는 주제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작가는 '빛'과 '시간'을 동등한 재료로 다루며, 표면의 조율과 집요한 손길을 통해 지질학적 리듬을 작품에 새겨 넣습니다. 바위와 빙하가 퇴적과 침식 속에서 형성되듯, 그의 작업은 유리 안에서 응축된 시간을 결정화시킵니다. 이번 전시는 'Void'에서 'Breathing Void'로 이어지는 궤적 속에서 박성훈의 사유와 실험을 집약해 보여줍니다. 퇴적된 시간과 분절된 빛을 가로지르는 그의 신작들은 유한 속에서 무한을 향한 가능성을 열어 보이며, 균열과 비움의 공간에서 새로운 감각의 지평을 제시합니다.

Gallery Sklo presents Park Sunghoon's second solo exhibition, 《Fractures of Time and Light》.

From the 'Void' series to 'Breathing Void', Park Sunghoon has persistently explored the intertwined notions of 'emptiness' and 'expansion.' If 'Void' embodied the condensation of energy infused with breath, the new 'Breathing Void' works are grounded in the artist's DNA-like 'hexagonal' structure. They bear the strata of accumulated time and reveal breathing spaces through the fragmentation and recombination of light. The hexagonal pattern is not a decorative motif but a fundamental device for his experiments with infinity—like the panels of a spacecraft gathering immense light and releasing it back into the cosmos. Along the glass surface, light is ceaselessly fractured and reorganized, generating new colors, spaces, and perceptual layers that draw viewers into experiences of variation without end.

What distinguishes these works is that such structures and processes move beyond visual effect to expand into the theme of the 'materialization of time.' Park treats 'light' and 'time' as equal substances, inscribing geological rhythms into glass through repeated surface refinement and disciplined gesture. Just as rocks and glaciers are shaped by the sedimentation and erosion of time, his practice crystallizes condensed temporality within glass itself. This exhibition follows the trajectory from 'Void' to 'Breathing Void', presenting the culmination of Park's thought and experimentation. His new works, traversing stratified time and refracted light, propose the possibility of infinity within the finite, opening new horizons of perception through fracture and emptiness.

## 유한 속의 무한: 박성훈의 Void

글 | \* 조새미 (미술평론가)

모든 경험은 시작과 끝이 있으므로 유한하다. 인간의 경험은 개별적인 사건의 불연속적인 집합으로 이루어지므로 무한이라는 개념을 시각화하는 일은 언제나 도전이었다. 시각예술에서 무한은 지각 속에서 매 순간 갱신되는 상태를 추구하는데, 반사, 굴절, 투과와 같은 빛의 성질이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박성훈의 유리 작업은 고도로 숙련된 유리 공예 기술과 정밀한 표면 조각이 결합한 결과로 관객은 이동할 때마다 상이 분절, 재조합하는 상황 속에 놓인다. 이러한 유한 속의 무한이라는 난제를 박성훈은 유리를 토대로 한 광학 실험으로 탐구한다.

### 무한을 설계하는 장인

미술사에서 무한 개념은 초자연적 현상을 재현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탐구되었다. 알트로드퍼(Albrecht Altdorfer, c.1480~1538)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성모 Maria mit dem Kinde in der Glorie〉(c. 1525)에서 제시되는 종교적 환영<sup>1)</sup>에서 야요이 쿠사마(草間 彌生, b. 1929)의 Infinity Mirror Rooms 연작(1965~현재), 그리고 올라퍼 엘리아슨(Ólafur Eliásson, b. 1967)의 Your Spiral View(2002)과 같은 빛의 실험에 이르기까지, 무한은 예술가들의 오랜 과제였다.

박성훈은 장인적 기술을 토대로 이러한 환영의 조건을 정교하게 구조화한다. 유리의 투명성과 굴절성, 그리고 미세한 광학 변화를 핵심으로 삼는 그의 작업에서 별집처럼 빛을 분절하는 표면을 따라 수많은 상이 맺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작품은 빛과 각도가 바뀌는 매 순간 다른 형상과 색을 보여준다. 초점과 윤곽, 감정도 달라진다. 표면의 각 면이 작은 프리즘으로 작용해 관객이 보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관객은 작품을 한 번에 전체로 볼 수 없다. 구형 볼륨은 시간성을 부여하는데, 이는 외부에서 표면을 순회하는 방식, 즉, “시간적인 경험<sup>2)</sup>”으로 이어진다.

1) E.H. 고프브리치, 차미레 율김, 『예술과 환영, 회화적 재현의 심리학적 연구 Art and Illusion』, 열화당, 2008 [1960], pp. 211~212.

2) 로잘린드 크라우스, 「보(게)하는 고통/보(려)는 충동」, in: 헬 포스터 엮음, 최연희 율김, 『시각과 시각성 Vision and Visuality』,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1988] p. 102.

이러한 박성훈의 작업은 전통적 유리 블로잉과 정밀 연마 작업을 결합한 두 겹의 제작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블로잉 단계에서 그는 상용 공구 대신 작업 특성에 맞춘 자체 제작 보조 도구를 사용한다. 이 장치는 용융 유리의 무게를 분산하고 축을 안정화해, 작가가 균형을 잡으며 성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범선의 키를 닮았다. 작가는 조타수처럼 이 도구를 회전시키고, 바람 대신 불의 열로 유리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선장이 항로를 정하듯, 그는 빛과 열의 흐름을 조율하며 형태를 완성한다.

인내심을 요구하는 서냉의 과정이 지나면 작가는 표면 연마 작업에 착수한다. 그에게 연마 작업은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는 행위인 동시에 공간을 조율하는 과정이다.<sup>3)</sup> 별집 같은 표면은 버크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 1895~1983)의 지오데식 돔(geodesic dome)을 연상시킨다. 기하학적 패턴 반복으로 구형을 이루고, 모듈 단위의 반복성이 전체 형태를 안정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풀러는 효율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는데, 최소 재료로 최대 공간 확보하고, 빛을 내부로 고르게 분산시켜 채광 및 보온을 쉽게 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박성훈은 효율이 아닌 증폭을 택한다. 빛을 분절시켜 끊임없이 상을 생성하려는 의도를 충실하게 이행하며, 무한한 환영을 생산하기 위해 기하학을 매개로 삼는다. 그의 기하학은 끝없이 변주되는 환영을 생산하는 장치인 것이다.

### 색의 상대성

색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 색은 빛의 파장, 환경 조건, 그리고 관람자의 지각 작용이 만들어내는 가변적 현상으로 주변 광원의 강도, 방향, 그리고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색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바우하우스의 기초과정 교수였던 요제프 알버스(Josef Albers, 1888~1976)가 체계적으로 시각화했다.

3) 박성훈 작가노트(2025).

\* 사진(오른쪽): VOID\_#8 | 2023 | Ø45.5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박성훈의 유리 작업을 알버스의 유리 실험과 비교해 보면, 색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고 상호작용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문법으로 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버스는 바우하우스 유리 공방에서 스테인드글라스와 모래 맞춤을 통해 납선의 경계를 최소화 하고, 빛이 통과하는 동안 인접한 색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주목했다. 알버스에게 유리는 “빛을 통과시키는 회화”를 가능케 하는 장치로, 색을 읽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론이었다.<sup>4)</sup>

반면 박성훈은 3차원의 언어로 색이 발생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육각 오목 패턴은 표면을 미세 곡률로 분해하여 각 면마다 서로 다른 입사각과 반사각, 전반사 조건을 설정하고, 그 결과 색은 다층의 경로를 따라 생성된다. 그리데이션 효과로 인해 하나의 사물 안에서 각기 다른 명도와 채도를 감각하게 되는데, 작가는 표면의 각(角) 분포가 만드는 ‘각적 인접성(angular adjacency)’으로 색의 상대성을 공간화한다.

관객은 초록의 유리 작업을 감상하다 시선을 옮기게 되면 곧이어 빈 공간에서 붉은색 기운을 감지하게 된다. 이는 특정 색을 오랫동안 응시한 후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원래 색의 보색이 나타나는 음성 잔상(negative afterimage) 현상이다. 박성훈의 작업은 색이 환경과 시점의 함수임을 즉물적으로 증명한다. 알버스가 2차원의 유리 작업을 통해 빛이 유리를 통과하며 색을 지각하는 논리를 증명했다면, 박성훈은 색을 사건화하는 빛의 반사, 굴절, 잔상의 논리를 입체 구조물로 구체화한다.

## Glass Eyes & 초현실적 시선

박성훈의 작업은 무한과 환영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빛의 기계일 뿐 아니라 직관적으로 ‘안구(眼球)’를 연상시킨다. 초점을 생성하고 곧 다시 갱신하는 거대한 수정체처럼, 무수한 소(小) 렌즈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해부학적으로 수정체는 이중 볼록(biconvex) 구조의 조직으로, 망막 위에 빛을 정확히 초점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형태가 곧 기능인 장기다. 박성훈의 작업은 이 생체 광학의 핵심을 공예적 조각 언어로 번역해 냈다.

이렇듯 시각과 시각성의 구조를 질문한다는 점에서 박성훈의 작업은 유리 안구의 문화사와 연동된다. 의공학과 유리 공예의 교집합에 위

치하기에 융합적 미덕(hybrid virtue)을 포용하는 탐험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독일에서 제작된 유리 안구가 사회적 시선 회복을 돕는 장치였다면<sup>5)</sup>, 박성훈의 작업은 시각의 조건 자체를 재구성한다. 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실험하는 작가의 유리 구조는 감각 지각적 초점을 구축하는데, 이는 광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유리를 장인적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초현실주의적 전통 속에서 불안, 폭력, 에로스적 상상력이 뒤엉킨 심리적 장도 형성하는 작가의 작업은 관객을 응시하거나 반대로 관객으로부터 응시당하는 감각도 환기한다. 이는 초현실주의가 즐겨 다룬 이중 상징의 맥락 속에서, 불안과 매혹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공격성의 은유가 되기도 하는데, 눈을 찌르거나, 분리하거나, 과장하는 행위 등과 같은 신체 파편화의 충동 및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과도 연동된다.

## 빛과 시간의 층화

박성훈에게 유리는 물질이 아닌 감각을 매개하는 실험적 장치이다. 그는 빛의 투명성, 비어 있음, 중력과 같은 비물질적 조건을 탐구한다. 이를 위한 작업 과정은 바위나 빙하가 시간의 퇴적과 침식 속에서 형성되는 자연의 과정과 유사하다. 반복적 연마를 거쳐 우리가 빛을 결정화하는 순간에 도달할 때, 우리는 지각적 사건의 장소로 변환된다.

박성훈의 작업은 빛과 시선, 열과 물, 마찰과 광택이 중첩되는 다층적 층위 속에서 지각 경험의 구조를 형성한다. 시각적 지각이 수동적 수용을 넘어, 시간적, 신체적 경험의 통합적 산물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층화’(stratification)의 개념과 연결된다. 층화는 시간의 축적과 해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성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관객은 이 감각 속에서 ‘무한’에 가까워질 수 있다. 심장 박동과 같은 신체적 진동, 생리적 리듬과 연결되며, 지각 경험이 신체적 실재와 맞닿아 있음을 알려준다. 박성훈의 유리는 장인의 손으로 물질을 다룸으로써 무한이라는 개념을 감각적 사건으로 제시한 결과이다. 점점 두터워지고 확장하는 그의 유리는 무한과 연결된 가능성과 유토피아적 지평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며 이상향과 연결되는 새로운 감각을 열어준다.

4) Josef Albers: Glass, Color, and Light, exh. cat.,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1994), Cat. no. 23, ill.

5) 16세기 베네치아에서 이미 유리 인공안이 만들어졌고, 19세기 초 독일 튀링겐의 라우샤(Lauscha)에서 뮐러-우리(Ludwig Müller-Uri, 1811-1888)가 공정을 정교화하며 근대적 안구 보철 제작의 표준을 확립했다. 라우샤 유리는 파리식 유리 안구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크리올라이트(cryolite) 유리를 도입해 공막의 회백색을 사실적으로 재현했고, 유리관 끝을 가열·성형하는 램프워킹으로 속도와 정밀도를 높였다. Rokohl, A. C. et al., "Prosthetic eye care -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Contact Lens and Anterior Eye (2025).

\* **Writer 조새미 (Cho Saemi)** 미술비평가. 동시대 미술과 공예, 건축을 가로지르며 감각과 물질, 존재의 윤리를 탐구하는 비평을 써왔다. 『월간도예』, 『퍼블릭아트』, 『한국경제 아르떼』 등에 글을 발표했으며, 예술의 맥락과 조형 언어를 연결하는 글쓰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전시는 비움과 채움, 응축과 확장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출발한 성찰이다. 응축된 시간과 빛은 다시 틈과 균열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 작가노트에서 발췌

보이드를 넘어, 호흡 속으로

모든 것은 경계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Void’는 경계의 해체이자, 그 경계를 무화시키는 틈이다. 우리는 단단하면서도 투명하고, 안과 밖을 동시에 품으며 빛과 그림자를 흘려보낸다. 그 속에서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빛과 시선, 공기와 시간이 스며드는 통로가 된다. 내부와 외부, 자아와 타자, 시간과 우주를 이어주는 문과도 같다.

우리는 한때 내게 단순한 재료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공간과 인식을 실험하는 도구이며, 비워진 중심은 고정된 개념을 흔들어 놓는다. 공간은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빛과 감각을 따라 끊임없이 생성된다. 나는 그 과정을 통해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임을 체험한다. 비움은 닫힌 틀을 넘어 무한히 확장되는 길이며, 보이지 않던 공간을 드러내는 새로운 채움이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우주의 시간, 그리고 인간 인식의 경계에서 출발했다. 협곡은 수백만 년의 물과 바람, 퇴적과 침식이 빚어낸 조형이다. 그 좁고 깊은 틈 속에서 빛은 잘려 나가고, 공간의 깊이는 극대화된다. 나는 그 질서와 시간을 유리에 새기고 싶었다.

연마는 단순한 표면 가공이 아니라, 거칠고 날카로운 흔적을 다듬어가며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자연의 손길과 인간의 개입이 만나는 자리, 그 경계에서 나는 작업한다.

우주의 질서 또한 나를 사로잡는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육각 반사경은 우주를 향한 인간의 의식이 만든 눈이자, 빛과 시간을 수집하는 기하학적 언어다. 육각형은 별집과 눈송이, 은하의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자연의 선택이자 우주의 기본 단위다. 나의 유리구 속 비워진 중심과 육각 구조는 서로를 닮아 있다. 결국 망원경의 거울이 인간 자신을 되비추듯, 내 유리 역시 공간과 자아를 되돌아보게 한다.

유리와 우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닮아 있다. 우리는 빛과 물질의 만남을 통해 공간을 변화시키고, 우주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빛과 에너지를 순환시켜 새로운 질서를 낳는다. 나는 그 사이에서 유리를 매개로 자연의 시간과 우주의 질서를 바라본다. 동시에 나 자신의 인식과 존재를 묻는다. 이번 전시는 비움과 채움, 응축과 확장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출발한 성찰이다. 응축된 시간과 빛은 다시 틈과 균열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 ARTIST STATEMENT

“This exhibition is born at the threshold where emptiness and fullness, condensation and expansion intersect. Time and light, once compressed, open again into fissures and fractures, from which new spaces emerge.” – from the artist's note

### Beyond the VOID, Into Breathing

Everything begins at a boundary. Yet the ‘Void’ I pursue is not a limit but its dissolution, a fissure that nullifies edges. Glass is firm yet transparent, holding both inside and outside, light and shadow at once. Within it, emptiness is not absence but a passage where light, gaze, air, and time seep through—a threshold connecting interior and exterior, self and other, time and cosmos.

Glass was once a mere material to me, but it is no longer. It is a tool to probe space and perception, its hollow center loosening fixed ideas. Space is not a final form but something endlessly generated by light and sensation. Through this I have come to know that “to empty is also to fill.” Emptiness opens beyond closed frames, unfolding into infinite continuity, becoming a new form of fullness that reveals what had been unseen.

This exhibition arises from reflections on the time of

nature and the cosmos, and on the edges of human perception. A canyon, carved by water and wind over millions of years, intensifies light and space within its narrow depths. I wanted to inscribe such order and temporality into glass. Grinding, for me, is not

Inspiraion Images



## ARTIST STATEMENT

surface treatment but the act of softening harsh edges to uncover another order—a meeting point where the hand of nature and human intervention converge.

The order of the universe seizes me as well. The hexagonal mirrors of the James Webb Space Telescope are a collective eye of human consciousness, a geometric language that gathers traces of light and time. The hexagon is nature's choice, repeated in hives, in snowflakes, in the structures of galaxies—the basic unit of cosmic design. The hollow core of my glass spheres and the hexagonal grid resemble each other. Just as the telescope's mirrors ultimately reflect us back to ourselves, my glass returns the gaze toward space and the 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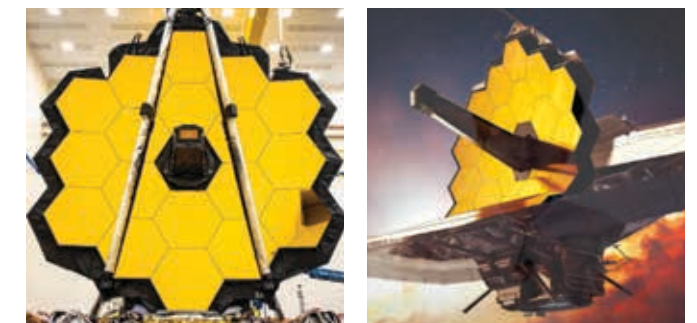
Glass and the cosmos may seem distant, yet they share an essence. Glass transforms space through the interplay of light and matter, while the universe creates new orders through the endless circulation of light and

energy. Through glass, I look upon the time of nature and the order of the universe, while also questioning my own perception and existence.

This exhibition is born at the threshold where emptiness and fullness, condensation and expansion intersect. Time and light, once compressed, open again into fissures and fractures, from which new spaces emerge.

Inspiraion Images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ames Webb Space Telescope (JWST)





Breathing Void\_2475\_VC (amber light)  
2025 | h34,5 x w34,5 x d34 cm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2559\_EH (pink lilac)  
2025 | h42 x w43 x d40 cm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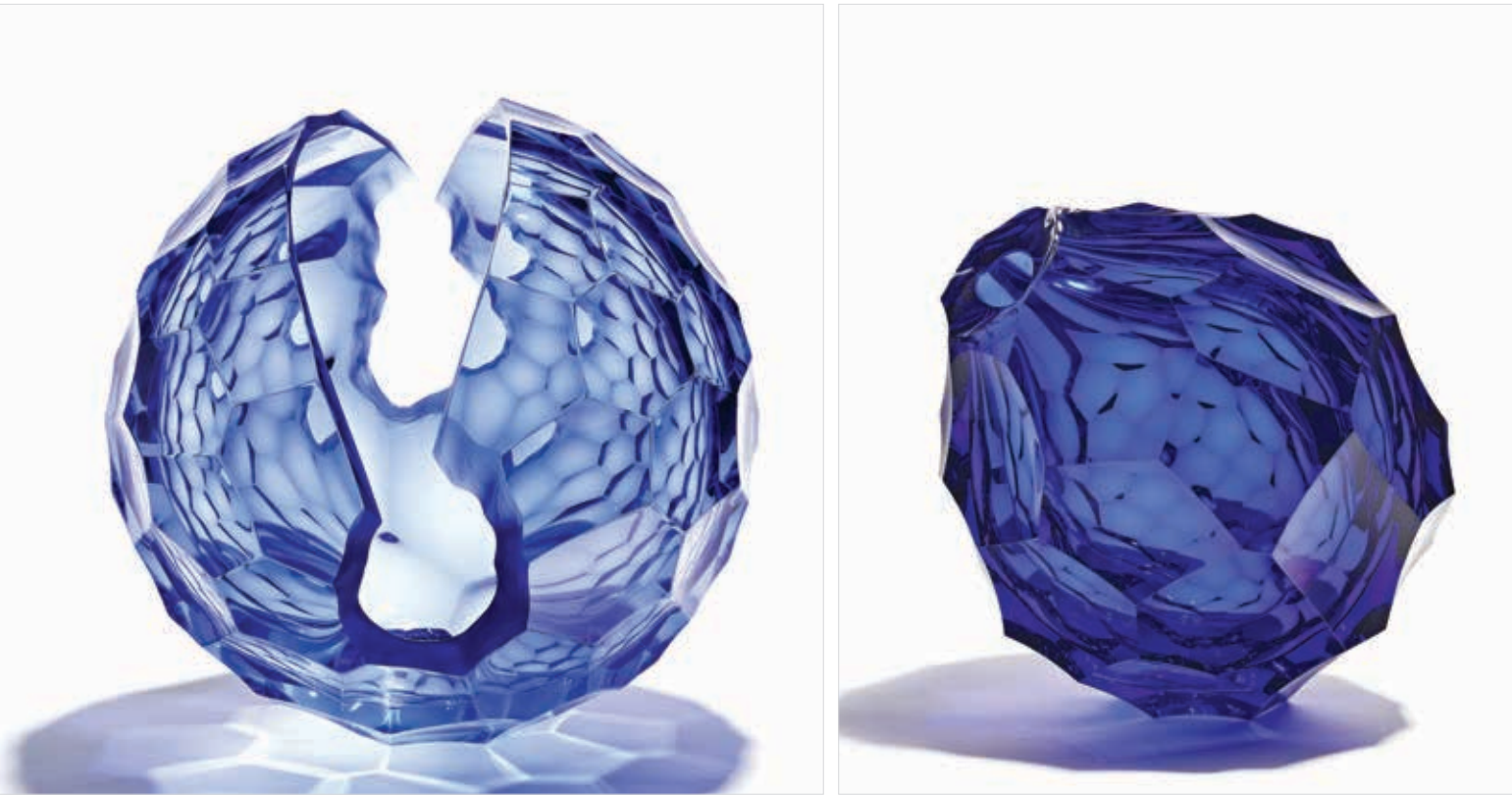
# Breathing VO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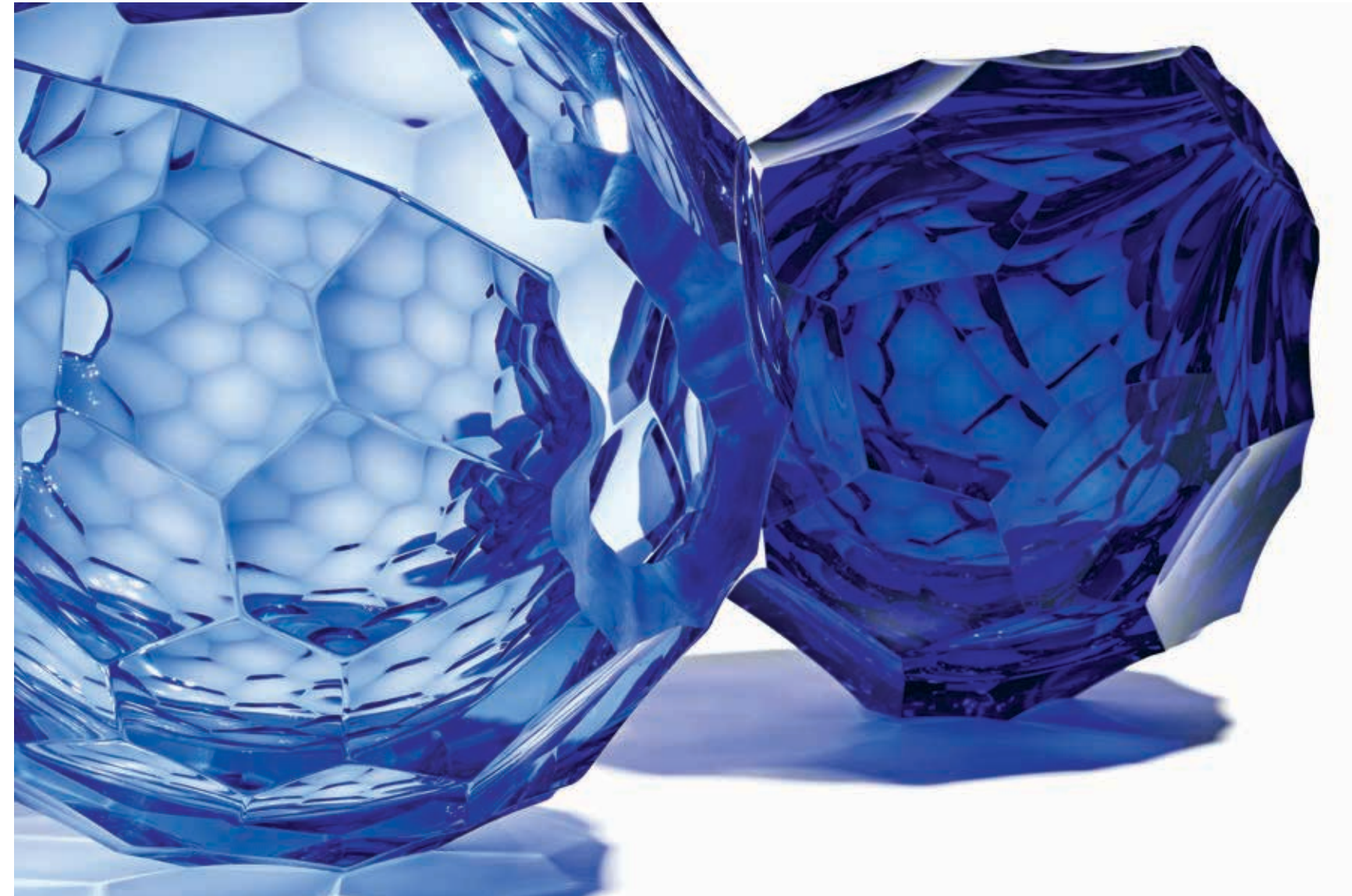
Detail of Breathing Void\_2475\_AO  
(amber light)



Breathing Void\_2475\_AO (amber light) | 2025 | h43 x w44 x d44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2561\_VC (blue lilac) | 2025 | h44,5 x w42,5 x d42,5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2561\_BD (blue lilac) | 2025 | h36 x w32 x d32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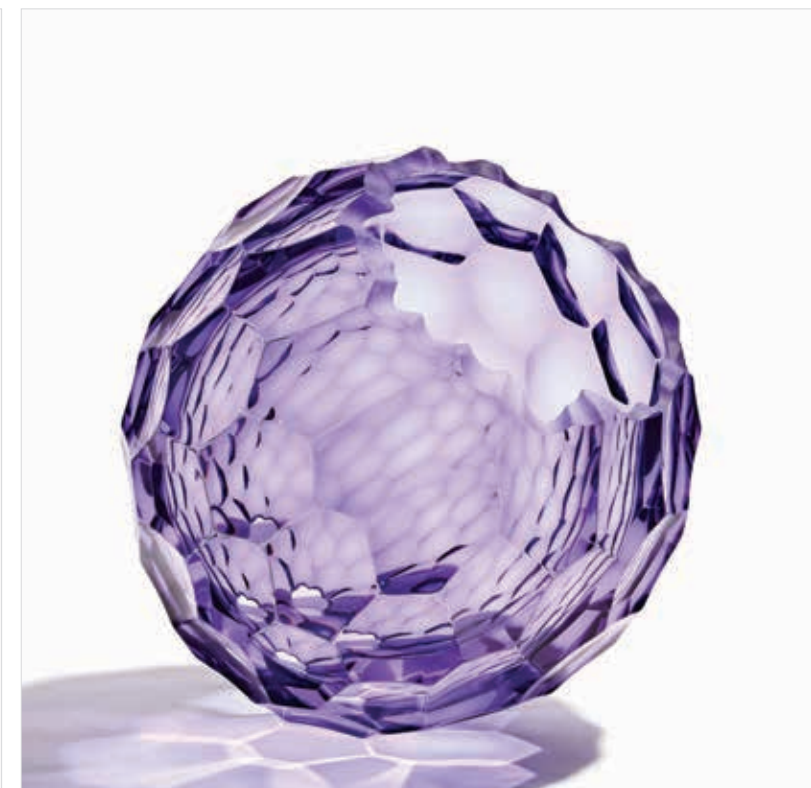
Detail of Breathing Void\_2475\_AO (amber light) of Breathing Void\_2561\_VC (blue lilac), Breathing Void\_2561\_BD (blue lil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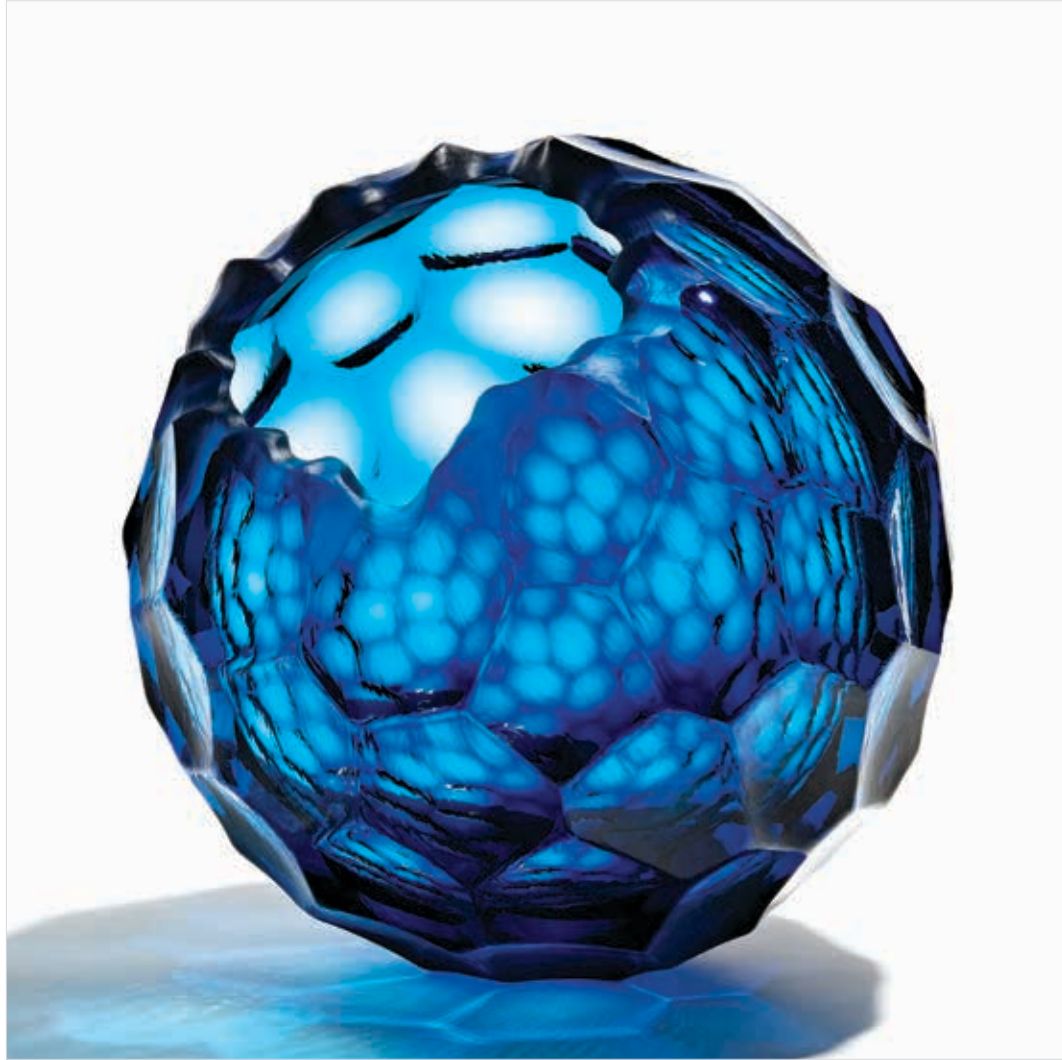


Breathing Void\_5005\_OV (pink) | 2025 | h37 x w47,5 x d37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2466\_OV (yellow green) | 2025 | h43 x w44 x d44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2475\_VC (amber light) | 2025 | h34,5 x w34,5 x d34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2559\_EH (pink lilac) | 2025 | h42 x w43 x d40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2871\_EH (turquoise blue) | 2024 | h42 x w43.5 x d43.5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5005\_VC (pink) | 2025 | h38.5 x w43.5 x d41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2466\_AO (yellow green) | 2025 | h44 x w41 x d41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2466\_EH (yellow green) | 2025 | h36,5 x w46 x d46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2873\_AO (green lime) | 2025 | h45.5 x w44 x d44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Breathing Void\_5005\_AO (pink) | 2025 | h45 x w43.5 x d43.5 cm | blown, coldworked and polished glass



# Variations of VOIDs

View of exhibition 전시전경  
The Room of 'COSMIC EYE'

## COSMIC EYE Room

육각 구조는 작업 초기부터 내 안에 무의식으로 스며든 언어였다. 단순한 기하학이 아니라, 자연이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질서이자 눈송이와 벌집, 은하의 패턴 속에서 반복되는 우주의 호흡이었다.

이번 전시에서 설치한 육각 패널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모티브로 했다. 수많은 거울이 모여 하나의 눈을 이루듯, 그것은 하나의 우주적 벌집이자, 무한을 응시하는 시선이다. 육각은 효율의 구조이자 집중의 형식이면서, 동시에 묵묵히 한곳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닮아 있었다. 작은 단위가 모여 하나의 응집된 질서를 이루듯, 나의 작업 역시 작은 반복과 집요한 손길을 통해 더 큰 전체로 확장되어 왔다.

이 방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다. VOID가 모인 집합체, 'Variations of VOIDS'를 비추고 응시하는 감각적 장치이다. 빛은 이곳에서 부서지고 겹쳐지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 때, 작품과 관람자가 서로를 반사할 때, 이 방은 무한을 향해 열린 또 하나의 눈이 된다.

The Universe Within\_01 | 2024



## COSMIC EYE Room

The hexagonal structure has been an unconscious language embedded in my work since its early stages. It was never mere geometry, but the most efficient order chosen by nature—an elemental rhythm that recurs in snowflakes, in the hive, and in the patterns of galaxies, carrying the very breath of the cosmos.

The hexagonal panels installed in this exhibition were inspired by the James Webb Space Telescope. Just as countless mirrors assemble into a single eye, the panels form a cosmic hive—both a device that gathers light and a gaze fixed upon infinity. The hexagon is a structure of efficiency and a form of concentration, yet at the same time it resembles my own attitude of persistently focusing on a single point. As small units converge to create an integrated order, so too has my work expanded through repetition and unrelenting devotion.

This room is not a conventional exhibition space. It is a sensory device that reflects and contemplates the collective presence of 'VOID'—'Variations of VOIDS'. Here, light shatters and overlaps to generate new orders; when works and viewers reflect one another within it, this room becomes another eye, opened toward infinity.

The Universe Within\_02 | 2024





View of exhibition 전시전경  
The Room of 'COSMIC EYE'

## The Infinite Within the Finite: Park Sunghoon’s Void

Written by | Cho Saemi (art critic)

All experience is finite, bound by beginnings and endings. Human experience, composed of discontinuous and singular events, has always made the visualization of ‘infinity’ a challenge. In the visual arts, infinity is pursued as a state continuously renewed within perception, sustained by the properties of light—reflection, refraction, and transmission. Park Sunghoon’s glass works, the result of combining highly skilled glassblowing with precise surface carving, place the viewer in circumstances where images fracture and recombine with every movement. Through such optical experiments in glass, Park investigates the paradox of ‘the infinite within the finite.’

### The Artisan Who Designs Infinity

In art history, the concept of infinity has been actively explored whenever artists sought to recreate the supernatural. From the religious vision<sup>1)</sup> presented in Albrecht Altdorfer (c.1480-1538), (c.1525), to Yayoi Kusama (b.1929) and her Infinity Mirror Rooms series (1965-present), and Ólafur Elíasson (b.1967), *Your Spiral View* (2002), infinity has long remained an artistic pursuit.

Park, grounded in artisanal technique, structures the conditions of such illusion with exacting refinement. In his works, the transparency and refractive capacity of glass, along with subtle optical variations, are central. Along honeycomb-like surfaces that divide light, countless images appear and dissolve in repetition. With each change of light and angle, the works reveal different figures, colors, and even shifting emotions. Each facet functions as a prism, reorganizing the act of seeing. The viewer cannot apprehend the whole at once. The spherical volume imposes temporality, compelling vision to circulate around its surface, extending toward a ‘temporal experience<sup>2)</sup>.’

1) E.H. Gombrich, trans. Cha Mi-rye, *Art and Illusion: A Study in the Psychology of Pictorial Representation*, Yölhwadang, 2008 [1960], pp. 211–212.

2) Rosalind Krauss, “The Pulsation of the Visible / The Impulse to See,” in Hal Foster (ed.), trans. Choi Yeon-hee, *Vision and Visuality*, Kyöngsöng University Press, 2004 [1988], p. 102.

These works are born of a twofold process: traditional glassblowing combined with precise grinding. During the blowing stage, Park employs tools of his own invention rather than standard instruments. These devices disperse the weight of molten glass and stabilize its axis, enabling him to balance and form the material. They resemble the rudder of a sailing ship. Like a helmsman, he rotates the device, animating the glass not with wind but with fire’s heat. As a captain sets a course, he orchestrates the flows of light and flame to complete the form.

Once the patient process of annealing is complete, Park begins the grinding of the surface. For him, grinding is both the discovery of a new order and the orchestration of space<sup>3)</sup>. His honeycomb-like surfaces recall Buckminster Fuller (1895-1983) and his geodesic dome, where geometrical repetition composes a sphere and modular units provide overall stability. Yet while Fuller exalted efficiency—maximizing space with minimal material, diffusing light evenly to ensure illumination and insulation—Park chooses amplification. He fragments light deliberately, fulfilling the aim of generating ceaseless images. Geometry becomes his instrument, a device for producing infinite variation.

### The Relativity of Color

Color is always born in relation. It is a mutable phenomenon shaped by wavelength,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erceptual processes. It shifts according to the intensity and direction of light, and the position of the viewer. Josef Albers (1888-1976), while teaching at the Bauhaus, systematically visualized this principle.

3) Park Sunghoon, *Artist’s Note* (2025).

When comparing Park’s glass works with Albers’ experiments, one finds different responses to the same question: under what conditions does color arise, and how do colors interact? Albers, through stained glass and sandblasting, minimized the interruption of lead lines, observing how adjacent colors influenced one another as light passed through. For Albers, glass became a device enabling “painting with light,” a methodology for teaching the perception of color<sup>4)</sup>.

Park, by contrast, demonstrates how color emerges in three dimensions. His hexagonal concave patterns fragment curvature into countless micro-surfaces, each establishing unique angles of incidence, reflection, and conditions of total internal reflection. Color is thus generated along multiple layered pathways. Through gradation effects, the viewer perceives varied tones and brightness within a single object. By means of the distribution of facets—what may be described as ‘angular adjacency’—Park spatializes the relativity of color.

The viewer who gazes upon a green glass work may, upon shifting focus, suddenly perceive a red aura in the surrounding space. This is the phenomenon of negative afterimage, where prolonged attention to one hue causes its complement to appear when the gaze moves elsewhere. Park’s works demonstrate concretely that color is contingent, always a function of environment and perspective. If Albers proved through two-dimensional glass that light’s passage revealed the logic of color perception, Park embodies this principle in three dimensions, rendering color as an event produced by reflection, refraction, and afterimage.

## Glass Eyes & Surreal Vision

Park’s works are not only optical machines that reconstruct infinity and illusion; they also instinctively evoke the ‘eye.’ Like colossal crystalline lenses, they are composed of countless micro-lenses that generate and renew focus. Anatomically, the human lens is biconvex, a structure in which form and function are inseparable, concentrating light precisely upon the retina. Park translates this biological optics into the language of craft and sculpture.

In this way, his works resonate with the cultural history of glass prosthetic eyes. As early as the sixteenth century, glass prostheses

4) Josef Albers: Glass, Color, and Light, exh. cat.,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1994), Cat. no. 23, ill.

5) As early as the sixteenth century, glass prosthetic eyes were already being produced in Venice, and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in Lauscha, Thuringia, Germany, Ludwig Müller-Uri (1811–1888) refined the process and established the modern standard for ocular prosthesis. Lauscha glass inherited the strengths of the Parisian style, while introducing cryolite glass to reproduce the whitish-gray of the sclera with greater realism, and improved both speed and precision through lampworking, which involved heating and shaping the ends of glass tubes. Rokohl, A. C. et al., “Prosthetic eye care –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Contact Lens and Anterior Eye (2025).

were produced in Venice, and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German town of Lauscha became a center where Ludwig Müller-Uri (1811-1888) refined the process and established modern standards of ocular prosthesis<sup>5)</sup>. Park extends this legacy into an exploration of the very conditions of vision.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glass craft and biomedical optics, his work embraces a hybrid virtue, reconstituting vision itself.

These works also echo the Surrealist tradition. They form a psychic terrain in which anxiety, violence, and erotic imagination intertwine. The viewer senses both the act of gazing and of being gazed upon. Like the doubled symbols favored by Surrealism, Park’s eyes evoke both fascination and unease. They may also serve as metaphors of aggression—acts of piercing, separating, or exaggerating—that disclose unconscious impulses toward bodily fragmentation and desire.

## The Stratification of Light and Time

For Park, glass is not simply a material but an experimental instrument of sensation. He investigates immaterial conditions such as transparency, emptiness, and gravity. His working process resembles natural formation, as stone and glaciers take shape through sedimentation and erosion over time. Through repeated grinding, the glass reaches the threshold where it crystallizes light, transforming into a site of perceptual events.

His works form layered structures where light and gaze, heat and water, friction and polish overlap. Visual perception here is not passive reception but a temporal and embodied process, the integrated product of duration and corporeal rhythm. This corresponds to the idea of ‘stratification,’ where accumulation and dissolution generate new possibilities<sup>6)</sup>.

Within this sensory field, the viewer approaches ‘infinity.’ Resonating with the vibrations of the body—heartbeat, physiological rhythm—Park’s works affirm that perception is anchored in lived corporeal reality. His glass, shaped through the artisan’s hand, renders infinity as a sensorial event. As the works grow thicker and more expansive, they reveal a will toward possibility, toward a utopian horizon, opening new realms of sensation aligned with the ideal.

6)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London: Continuum, 2004), p. 40. Sedimentation forms a stratum, organizing unformed matter into new possibilities.

\*Cho Saemi is an art critic and Visiti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Hongik University. Her writing crosses contemporary art, craft, and architecture, exploring the ethics of matter, sensation, and existence. She has contributed to publications including 『Monthly Ceramic』, 『Public Art』, and 『The Korea Economic Arte』, focusing on connecting artistic context with formal language.



## Artist Biography

# 박 성훈 PARK Sunghoon | Korea, b.1982

## EDUCATION

2012 M.F.A.,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서울  
 2008 B.F.A., 남서울대학교 환경조형학과 졸업, 천안

## SOLO EXHIBITIONS

2025 시간과 빛의 균열, 갤러리스클로, 서울  
 2023 VOID : Unconscious Thought, 갤러리스클로, 서울  
 2021 SEED, 모노하 성수, 서울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5 2025 Kiaf SEOUL, 갤러리스클로, 코엑스, 서울  
 청주시한국공예관 x 제네시스 공동기획전 (선정작가), 차오르는 밤, 제네시스 스페이스 청주, 청주  
 Design Miami.In Situ, 창작의 빛: 한국을 비추다, 갤러리스클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간수문전시장, 서울  
 2025 헤벨라시옹 비엔날레,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특별기획전, 유라: 빛과 불의 연금술,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 김해  
 2025화랑미술제, 갤러리스클로, 코엑스, 서울  
 2025 COLLECT London, Somerset House, 갤러리스클로, 런던, 영국  
 2024 제1회 유리지 공예상 결선 진출 작가전,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2024 공예트렌드페어, 초청작가, 청주시한국공예관 부스, 코엑스, 서울  
 202 4Kiaf SEOUL, 갤러리스클로, 코엑스, 서울  
 Korea Craft Show in Paris 2024, Liaigre 파리, 프랑스  
 Meet The Hot Glass 2024,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여주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Collaborated with Liaigre, 런던, 영국  
 커넥티드: 사물의 언어를 듣는다, 3인전, 갤러리스클로, 서울  
 화랑미술제, 갤러리스클로, 코엑스, 서울  
 2024 COLLECT London, Somerset House, 갤러리스클로, 런던, 영국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국제공예공모전 수상작 전시, 청주문화제조창, 청주  
 2023 Kiaf SEOUL, 갤러리스클로, 코엑스, 서울  
 2023 COLLECT London, 갤러리스클로, Somerset House, 런던, 영국  
 2022 Breaking Boundaries, 그룹전, 갤러리스클로, 서울

2020 Anything and Everything about Cups, KCDF 하반기 자체기획전,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서울  
 한국현대유리의 진화, 천안 신세계백화점, 천안  
 2019 Meet The Hot Glass, 청주시 한국공예관, 청주  
 2018 Meet The Hot Glass, 이천도자재단, 이천  
 삼척 유리나라 개관전, 삼척

## WORK EXPERIENCE

2022.09 -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강사, 서울  
 2016.12 - 2022.03 한국예술종합학교 근무, 서울  
 2018 - 2019 한국예술종합학교 평생교육단, Glass Blowing 수업 강사, 서울  
 2016 대부도 유리상, 박물관 근무, 안산시  
 2015 이도 블로잉 스튜디오, 블로잉 테크니션, 서울  
 2012 - 2014 Joon Glass 스튜디오, 연마 테크니션, 고양  
 2010 - 2011 제주 유리의성, 블로잉 스튜디오 근무, 제주도

## RESIDENCY

2017 Workshop/Residency, Partner Scholarship, Pilchuck Glass School, 시애틀, 미국 (2주간)  
 Workshop/Residency, Nijima Glass Art Museum, 도쿄, 일본 (미국 Pilchuck Glass School Scholarship 선정 특전) (2주간)  
 2012 Studio Residency, Toyama Glass Art Museum, 토야마, 일본 (2012.09.28~10.27)

## AWARDS & GRANTS

2024 제1회 유리지 공예상 결선 진출 작가, 서울 공예 박물관, 서울  
 선정작가, Korea Craft Show in Paris 2024, Liaigre Paris (KCDF후원), 파리, 프랑스  
 Meet The Hot Glass 2024,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여주  
 선정작가,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Collaborated with Liaigre, 런던, 영국  
 2023 금상 & 인기상 수상, 청주공예비엔날레 국제공예공모전, 청주문화제조창, 청주

2021 Winner, LEXUS Creative Masters Award, 한국 (Winner 4명)  
 2018 입선, International Hokuriku Kogei Awards, 일본  
 2013 입선, Stanislav Libensk Award 2013, 체코  
 입선, Kanazawa 국제 유리 공모전, 일본  
 2012 은상,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세라믹스 리빙오브제, 한국  
 도자재단, 이천 (일본 Toyama Glass Art Museum/Studio Residency 특전)  
 2011 Toyama 특별상,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세라믹스 장려상, 한국도자재단, 이천

## COLLECTIONS

2024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  
 푸른자축은행, 서울  
 2023 V&A (Victoria and Albert Museum), 런던, 영국  
 2022 벽산엔지니어링, 서울  
 2021 KUHO, 서울

2025 십자가 프로젝트 연마 중



## EDUCATION

2012 M.F.A., Glass major, School of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2008 B.F.A., Environmental Art & Design, Namseoul University, Cheonan-si, Korea

## SOLO EXHIBITIONS

2025 Fractures of Time and Light, Gallery Sklo, Seoul  
 2023 VOID : Unconscious Thought, Gallery Sklo, Seoul  
 2021 SEED, MONOHA Seongsu, Seoul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5 Kiaf SEOUL, Gallery Sklo, COEX, Seoul  
 Korean Craft Museum x Genesis Collaborative exhibition, Night in Molion, Genesis Space Cheongju, Cheongju, Korea  
 Design Miami. In Situ, Illuminated: A Spotlight on Korean Design, Gallery Sklo, Yigansumun Exhibition Hall DDP, Seoul  
 The Révélations Biennial 2025, Grand Palais, Paris, France  
 Special Exhibition, Glass: Born of light Shaped by fire, Clayarch Gimhae Museum, Gimhae, Korea  
 Galleries Art Fair, Gallery Sklo, COEX, Seoul  
 2025 COLLECT, Gallery Sklo, Somerset House, London, U.K.  
 2024 Finalists exhibition, 1st Yoolizy Craft Awards, Seoul Museum of Craft Art, Seoul, Korea  
 Craft Trend Fair, Invited Artists, Korean Craft Museum, COEX, Seoul  
 2024 Kiaf SEOUL, Gallery Sklo, COEX, Seoul  
 Liaigre, Collaborated Exhibition by KCDF, Paris Design Week, Paris, France  
 Meet The Hot Glass 2024, Gyeonggi Craft Center, Yeouju Liaigre Showroom, Collaborated Exhibition by KCDF, London Design Week, London, U.K.  
 CONNECTED: The Language of Objects, 3 person show, Gallery Sklo, Seoul  
 Galleries Art Fair, Gallery Sklo, COEX, Seoul  
 2024 COLLECT, Gallery Sklo, Somerset House, London, U.K.

2023 2023 Kiaf SEOUL, Gallery Sklo, COEX, Seoul  
 Cheongju International Biennale Exhibition, Cheongju, Korea  
 2023 COLLECT, Gallery Sklo, Somerset House, London, U.K.  
 2022 Breaking Boundaries, Gallery Sklo, Seoul  
 2020 Anything and Everything about Cups,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Seoul  
 Evolution in Korean contemporary glass 2020, Shinsegae Department Store, Cheonan-si  
 2019 Meet The Hot Glass exhibition, Cheongju Korean Craft Museum, Cheongju-si  
 2018 Meet The Hot Glass exhibition,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si  
 Opening Commemorative Exhibition, Dogye Glass World, Samchuck-si

## WORK EXPERIENCE

2022.09 - Instructor, glass blowing class, School of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2016.12 - 2022.03 Working at School of Visual Arts, W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2018 - 19 Instructor, glass blowing class, Continuing Education Center, School of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2016 Daebudo Glass Island, glass blowing studio technician, Ansan-si  
 2015 YIDO glass blowing studio, technician, Seoul  
 2014 Joon Glass Studio, coldworking technician, Goyang-si  
 2010 Jeju Glass Island, glass blowing studio technician, Jeju-do

## RESIDENCY

2017 Workshop/Residency, Partner Scholarship, Pilchuck Glass School, Seattle, USA (2weeks)  
 Workshop/Residency, Nijima Glass Art Museum, Tokyo, Japan (Selected for Scholarship of Pilchuck Glass School, U.S.A.) (2weeks)

2012 Studio Residency, Toyama Glass Art Museum, Toyama, Japan (2012.09.28~10.27)

## AWARDS & GRANTS

2024 The Finalist, 1st Yoolizy Craft Awards, Seoul Museum of Craft Art, Seoul, Korea  
 Selected, Featuring Special Floral Displays, collaborated by KCDF with the Liaigre London, U.K.  
 Selected, as one of the 20 noteworthy pieces at 2024COLLECT, London, U.K.  
 2023 GOLD PRIZE / Popular Choice Award,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Cheongju, Korea  
 2021 Winner, LEXUS Creative Masters Award, Korea (Winner 4 people)  
 2018 Selected, International Hokuriku Kogei Awards, Japan  
 2013 Selected, Stanislav Libenský Award 2013, CZECH  
 Selected, Kanazawa International Glass Festival, Japan  
 2012 Silver Prize, CeraMIX living object, Gyeonggi-do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Japan, Toyama Glass Art Museum/Studio Residency special selected)  
 2011 Toyama special prize, Gyeonggi-do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CeraMIX Living Object,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si

## COLLECTIONS

2024 Konkuk University, Seoul Campus, Seoul  
 Pureun Savings Bank, Seoul  
 2023 V&A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U.K.  
 2022 Byucksan Engineering, Seoul  
 2021 KUHO, Seoul





2024 COLLECT London, 'INTERIORS'지 선정 작품,  
갤러리스클로, Somerset House, 런던, 영국



2023 Permanent Collection, V&A (Victoria  
and Albert Museum), 런던, 영국



제1회 유리지 공예상 결선 진출 작품,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2025 특별기획전, 유라: 빛과 불의 연금술,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 김해

도록 진행  
PUBLICATION

갤러리 스킨로 Gallery Sklo

본 도록의 모든 권리는 갤러리 스킨로에 있으며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Gallery Sklo.  
Copyright © 2025 All rights reserved

디자인 DESIGN  
사진 PHOTO

graphicat  
명용인 MYOUNG Yongin (작품 이미지)  
이시백 LEE Sibaek (전시 전경)

인쇄 PRINT

비주얼볼 Visual VOM

후원 Sponsorship

